현장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FKTU Busan Regional Office

노동과 현장의 중심
노동조합은 연대의 힘입니다.

부산노보

vol. 342
2022년 9~10월호



Contents



06



12

부산노보
2022년 9~10월호 (제342호)

운동기조

'연대'를 통한 '개입과 견제'

-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노동의 역할
- 조직적 참여와 전략적 제휴 및 정책편성의 개입 전략
- 노동사회개혁과제 관철을 위한 연대와 협상, 투쟁

사업목표

- 조직노동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불평등 해소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사회체제의 제도화
- 조직확대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체계 구축
- 플랫폼·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확대사업 추진
- 각급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체계 강화

발행일 | 2022년 11월 30일
발행처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발행인 | 서영기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우47607)
T. 051-868-7601 http://bu.inochong.org

04 사랑의 연탄배달 나눔배달, 12월 1일 열린다

05 아듀 2022년도!
지역본부 송년보고대회 12월 28일 개최 예정

06 부산시「제30회 산업평화상 시상식」개최

08 지역본부 특화교육, '유니온리더 양성과정'

09 '하반기 노동자 인식전환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10 2022년 아파트 종사 노동자
권익보호 홍보캠페인

11 노사민정 주최,
최저임금 개선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12 2022년 한국노총 임원 부산지역본부 간담회

13 2022년도 상반기 지역본부 회계감사 수검

14 지역본부 - 보육시설 동산원,
노동복지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식 열려

15 지역본부,
연제구지역아동센터協 11개 기관과 간담회 가져

16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선물♡을 드립니다

17 선원위령탑에 순직선원 31위 추가 봉안

18 제18회 원양어업종사자 및 부산시민 축제 개최


19



20

20 DRB노조 제3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부산광역시공무직노조
제61주년을 기념하는 조합원 및 가족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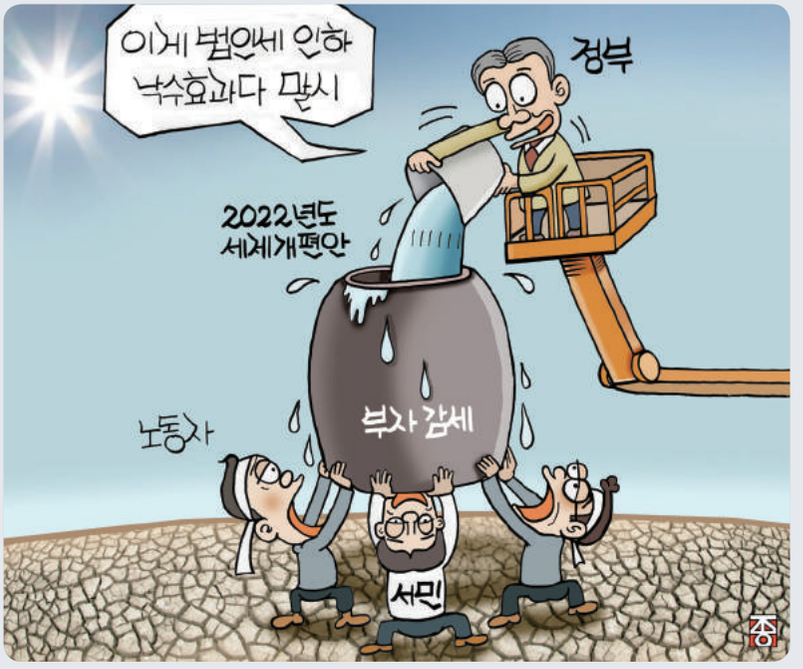
2022년도 제1~4차 상담역량강화 교육

21 꽹쇠, 노동법Q&A

24 [기고] 국가인권위원회 2022. 10. 25.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결정에 대하여

26 [기고]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나는 너의 “버팀목”

28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



노동자 세상

갈증 유발자

사랑의 연탄배달 나눔배달, 12월 1일 열린다



지역본부가 어김없이 연탄배달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실천한다. 지역본부는 12월 1일 오후 13시 30분 매축지 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단체의 사회적 책무 실현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 좌천동, 범일5동지열에 거주하는 불우한 독거노인 중 혼자 거동하시기 힘들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영세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 산별과 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직접 사랑의 연탄을 배달할 예정이다.

지역본부는 11월 한달여 기간동안 전조직적 차원의 협조요청과 함께 참여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탄나눔을 희망하는 조직은 조직본부(051-868-7601)로 연락하면 상담 가능하다. 전조직적으로 모금된 금액은 연탄은행을 통해 연탄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본부 서영기 의장은 "지역본부 조합원 모두가 하나되어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단합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 사랑을 통해 소통,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노동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주도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더 큰 관심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부산지역 노사정이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함께 하는 단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경영자총협회,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등이다.

- 행 사 명 : **노사정 독거노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 일　　시 : **2022. 12. 01.(목) 13:30**
- 집결장소 : 부산 동구 충장대로 289번길 17 수남경로당 앞(동아원 부산공장 옆 골목)



아듀 2022년도!



지역본부 송년보고대회 12월 28일 개최 예정

지역본부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2022년도 송년보고대회'가 12월 28일 오전 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열리는 지역본부 차원의 첫 번째 대규모 행사로 200여명 이상 조합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연말마다 열리는 송년보고대회는 한 해 동안의 다양한 활동들을 되돌아봄과 더불어 추진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소통을 위한 것으로 올해 또한 2022년도 사업보고 동영상을 통해 올 한해 펼쳤던 전반적 사업들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022년 한해 지역본부는 노동권익 보호와 부산경제 발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무던히 노력해왔다. 특히 지역본부 차원에서 수행한 각종 대회, 법률교육, 조직활동 및 업무성과와 더불어 민간위탁 차원에서 진행된 각종 사업들은 타시도지역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송년보고대회는 그러한 노력했던 다양한 활동사항들을 되돌아보며, 사회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과 시도들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영상 상영에 이어 지역본부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특강이 진행되며, 송년회를 겸한 단합의 장을 갖고 2022년도 지역본부 공식 행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역본부는 항상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이 땅의 노동자·서민대중, 그리고 부산지역경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더불어, 2023년 계묘년에도 합리적 사고, 강력한 투쟁으로 시민·노동자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 「제30회 산업평화상 시상식」 개최

모범노동자·기업인 등 10명 산업평화상 수상

「제30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이 11월 3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0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

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모범노동자·기업인) 8명과 △산업평화공로상 부문(유관기관 및 단체 구성원) 2명으로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황지담 송월타월(주) 노동조합 위원장 △김경규 한국노총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정산 고리3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 위원장 △김홍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부산지부 책임감사가 노사상생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기업인 부문에는 △오응준 삼부고무공업㈜ 대표이사 △유정아 국제인쇄㈜ 부사장 △도종복 ㈜성우하이텍 부사장 △이영자 금강통신㈜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노동자 복지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로자 부문에는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허재훈 부산경제진흥원 대리와 △안성민 부산







중부경찰서 경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되며, 특히 모범노동자는 3년간 광안대교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3년 코로나19로 노사 모두 힘들었지만,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에서 부산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산업평화상이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황지담 송월타월(주)노동조합 위원장



김경규 한국노총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정산 고리3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 위원장



김홍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부산지부 책임감사

맞춤형 특화 교육

지역본부 특화교육, '유니온리더 양성과정'

전 산별 참여하는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발전 예정



지역본부 특화교육으로 진행된 '유니온리더 양성과정'이 어느덧 여덟 차례에 이르렀다. 해당 프로그램은 21년도부터 시작된 노동조합 육성 프로그램으로, 모범적 노조간부 육성을 위해 기존 신임대표자 교육을 확대, 발전시켜 진행해오고 있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다.

제8차 과정은 11월 11일 통영 일원에서 주한미군한국인노조부산지부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진행예정인 제9~10차 과정은 12월 1일 전국금속노련부산지역본부와 전국고무산업노련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본부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강한 조직완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 이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뒀다.

올해 교육추진의 경우 희망 산별에 한해 선착순 접수 후 커리큘럼과 운영방안을 계획단계에서부터 해당 산별과 논의했으며, 강사섭외와 산업적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또한 개별로 협의하여 진행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과 교육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실질적 집합강의 형태는 현장으로부터 더 많은 교육의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지역본부는 올한해 시범적 운영을 통해 모아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전 산별이 참여할 수 있는 개별 특화교육으로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련 예산편성부터 각종 커리큘럼을 위한 강사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문 노동교육 구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적 확대는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권익 및 노동법률 관련 교육기회를 널리 제공함으로써 부산지역의 노동 감수성 확대와 노동존중문화 확산, 더 나아가 안전정 노사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맞춤형 특화 교육

‘하반기 노동자 인식전환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투철한 안보의식 강화 및 노동자 사기앙양에 기여



노동자들의 국가관과 통일안보의식을 견인하고, 산업평화 중요성인식과 노동자의 사기앙양에 기여코자 기획된 ‘2022년도 하반기 노동자 인식전환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이 11월 23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통영, 거제도 일원에서 실시된다.

다자주의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희석되어 가는 노동자들의 국가관, 역사의식, 안보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각종 교육 및 실천이 결합된 현장 조합원 참여형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지역본부 특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교육의 경우 호국정신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투철한 안보의식 강화와 노동자의 근무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날에는 통영 일원의 이순신공원과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 건물인 세병관, 한산대첩광장 등을 방문하여 역사적 가치와 함께 이순신의 발자취를 찾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했다.

둘째날 참가자들은 거제도로 넘어가 칠천량 해전공원과 옥포대첩 기념공원을 방문해 민족의식 고취와 더불어 호국의 얼과 높은 뜻을 계승 선양하는 또 다른 기회를 가졌다. 셋째날에는 평화의 소녀상, 거제포로수용소 및 안보전적지 등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특히 6.25전쟁 당시 포로수용소를 구현해놓은 유적공원과 당시 잔존 유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현 세대가 겪지 못한 전쟁의 참상과 6.25전쟁의 실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또 다른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본부는 내년에도 안보견학 차원의 집합교육을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올한해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임과 더불어 체험형 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 조합원들을 위한 현장활동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2년 아파트 종사 노동자 권익보호 홍보캠페인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는 11월 11일 오전 7시 30분, 시청역 비스타동원(시청역) 일원에서 '2022년 아파트 종사 노동자 권익보호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지역본부, 부산광역시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경영자총협회, (사)전국아파트연합회 부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등 6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미조직 취약계층인 아파트 종사 노동자의 경비·청소인력 감원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와 비인격적 대우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식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가 사업의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가 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용품들을 활용해 3개 조로 나뉘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 입주민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공감하자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 배부, 홍보용 기념품과 현수막, 홍보용 배너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아파트 종사자(경비원, 미화원)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사)전국아파트연합회 부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에 부산광역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준비한 성품(건강식품)을 전달했다.



노사민정 주최, 최저임금 개선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토론회 이어 3개 분과위원회 동시 열려





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한 '2022년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최저임금·임금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월 15일 오후 HJ컨벤션 세미나실(연제구 거제동 소재)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와 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사회 노사인식을 조사하고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와 노사민정 각 분야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저임금 및 임금체계와 관련한 지역 차원의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었으며, 특히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지역단위의 정책적 활동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함께 제기됐다.

1부 토론회는 김종한 경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대표노무사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의 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이재현 노무사는 설문과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로 진행된 '2022년 부산지역 최저임금 노사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는 결과보고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 교수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미래노동시장 대응과 대비, 지향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펼쳐졌으며 △지역본부 성영식 정책기획본부장 △성우하이텍 도종복 부사장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김명우 산재예방지도과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양근원 임금·HR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후 참여자들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3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발굴도 추진했다.

지역본부 서영기 의장은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보장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늘과 같이 이해당사자 간 차이와 간극을 좁히고, 합의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 차원의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는 자리임과 동시에, 각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2022년 한국노총 임원 부산지역본부 간담회 개최

노동자대회 참여 독려… 이어 제4차 의장단 및 산별대표자회의 열려

지역본부는 10월 12일 오전 10시 지역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한국노총 임원 시도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간부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지역본부 의장단 및 산별대표자 21명이 참석했다.

내셔널센터의 전국순회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11월 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전조직적 결집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실시됐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5개월의 노동 정책을 보면 반노동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노동, 금융, 공공 부분에 대한 공격이 현재 거세지고 있고 예외 없이 정규직은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 속에서 노동조합을 고립화시키고 있다"며 현정권의 편협한 노동시각을 비판했다.

특히 "노동운동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서 자본의 입에 맞도록 노동의 가치를 재단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노동정책이 실제로 해지된다면 그간 지켜온 우리의 노동에 대한 가치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상임부위원장은 "5년 임기지만 노정간의 민심의 균형은 초반 1~2년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하반기라는 짧은 기간동안에는 많은 사업들을 벌리기보다는 국회 입법과제와 전국노동자대회를 중심에 넣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조직강화본부 임성호 본부장은 '2022 하반기 한국노총 운동방향과 11.5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주제로 하반기 투쟁사업운영 방향과 주요 실행 계획들에 대해 설명했다.

하반기 한국노총 운동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대화와 투쟁을 통한 대정부 협상 전략을 기조로 노동입법 관철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전략적 투쟁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대 목표(△주요 노동입법 관철 △노동개악 분쇄 △한국노총 조직 강화) 및 10대 과제(△최저임금 업종 차별 적용 철폐 △공무직 차별 개선 및 신분보장 △사업이전시 고용승계보장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 보장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시장 개악 및 공공부문 개악 분쇄 △일방적 연금개악 저지 및 상향식 연금개혁 실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와 각급 조직의 핵심 요구 관철을 핵심 주요사안으로 단결과 연대를 통한 대국회 정부 압박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금번 전국노동자대회는 한국노총의 입법과제 천명과 더불어 노동개악 등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경고가 될 것"이라며 부산지역 조합원들의 강력한 연대와 결집을 통해 150만 한국노총의 투쟁력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했다.

서영기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노동입법 관철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11.5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전조직적 결집을 도모하여 하나 된 노동, 하나 된 한국노총의 강력함을 똑똑히 보여주자"며 향후 한국노총 하반기 운동 방향에 대한 각 산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이어진 제4차 의장단 및 산별대표자 회의에서는 △지역본부-굿모닝성모안과 눈건강증진 협약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편파 판정 규탄 결의대회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부산지역 릴레이 기자회견 △유니온리더 양성과정(2차~7차) △찾아가는 노동법률 및 심리치유상담(8차~13차) △노동존중 인식개선 캠페인(3차~5차) △2022년도 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 상시강좌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 공동 캠페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사업 등의 보고안건과 각 조직적 의 안건이 다뤄졌다.

2022년도 상반기 지역본부 회계감사 수검

재정운영 합리화 및 효율적 복지관 관리





조직운영규정 제20조와 회계규칙 제24조에 의거 지역본부 2022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10월 12일(수) 오전 지역본부 5층 강의실에서 선은현, 김수남, 김석득, 김윤석, 김형석 회계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재정운영 합리화, 효율적 복지관 관리, 노동복지사업 등 부산지역본부 일반회계(2022.03.01.~2022.08.31.)회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은 2022년도 총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총수입과 총지출, 잔액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바 정확하게 집행되었음은 물론, 증빙자료를 통해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회계감사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한국노총 소비조합 차입금액에 대한 일반회계 적립금으로의 통합 △코로나19가 완화에 따른 하반기에 적극적인 행사와 교육 실시 △조직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증빙서류 및 결의서 등 회계감사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하여 수검을 임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역본부 - 보육시설 동산원, 노동복지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식 열려

노무사 연계한 전문적 노무컨설팅 및 노동인권 교육 상시 실시





지역본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 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동산원'과의 노동복지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수영구에 소재한 보육원인 '동산원'은 사회복지법인 에덴육아원 산하 기관으로, 특수한 이유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 현재 동산원에는 0세부터 18세(최대 24세)까지의 30여명 이상의 보호아동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발전과 함께, 동산원의 아동들과 종사자들의 노동복지, 그리고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협약내용은 △인적교류 활성화 및 상호 관심사항 공조 △제반 노무 컨설팅 지원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법률 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지역본부는 동산원과의 연계활동을 도모함으로써 노무사와 연계한 전문적 노무컨설팅과 더불어 아동, 청소년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 및 노동법령, 기타 노동인권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곽영빈 사무처장은 "노동자와 부산시민의 권익보호와 노동증진을 위해 지역본부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본부를 비롯해 각 산별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원 김은형 원장도 "동산원은 시·구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생활시설이다 보니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것이 현실적 한계였지만 협약식을 계기로 현장의 노동인권이 개선됨에 따라 아이들 또한 쾌적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본부,
연제구지역아동센터協 11개 기관과 간담회 가져

'네트워크 제2차 운영회의'…운영사업 및 사회공헌 활동 평가





지역본부는 11월 18일 지역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연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11개 기관과 '노동인권교실 네트워크 제2차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본부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회의는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소외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지역본부 사회공헌 사업 평가와 함께 2023년도의 사업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금년도 추진했던 사업은 △노동인권 전문교육 △아동 인형극 및 체험활동 △아동센터 및 저소득 노동자 자녀 지원사업(16면 기사 참조) 등 크게 세 가지다.

노동인권 전문교육은 전문 노무사의 동행 아래, 여름방학을 맞이한 각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노동과 인권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아동 인형극 및 체험활동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인형극과 함께 인형을 직접 만드는 체험활동으로 이뤄졌다. 상반기에 이어 12월경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두 기관들은 사업성과에 대한 의견청취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상·하반기 제출받은 의견서와 회의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정책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본부는 2023년에도 종사자 및 아동대상 노동교육,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등 아동지원센터들과 연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나갈 방침이다.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선물♡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원 '동산원' 아동 위한 사랑의 물품후원





지역본부가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을 위한 사랑의 물품지원사업을 전개한다.

11월 18일 지역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연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11개 기관과 열린 '노동인권교실 네트워크 제2차 운영회의'를 통해 지역 아동들에 대한 사랑나눔 물품후원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지역본부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각 센터별 교육용 노트북과 개별 아동용 간식세트를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지난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11곳과 각 센터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에너지 관련 용품을 지원했다.

후원 물품은 센터별 기증품인 대형 에어프라이어 11대와 개별 아동용 디지털 손난로로, 금번 후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12월초 보육원인 '동산원'측에도 사랑의 나눔 기증식을 진행하고 육아용품 및 아동, 보육시설 후원물품을 기부한다.

전달물품은 보육원 담당자와 사전 연락을 통해 가장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된다. 신생아와 여성 아동을 위한 용품들을 비롯해 보육시설에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기증할 방침이다.

'동산원'은 부모를 잃었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유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현재 신생아부터 만18세까지의 아동 30여 명이 거주 중이다.

지역본부는 작년 연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동산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다양한 노동교육 및 복지활동들과 함께 지역 아동들에 대한 사랑나눔을 실천하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선원위령탑에 순직선원 31위 추가 봉안

제44회 순직선원 위령제 개최



전국해상선원노련(이하 선원노련)은 10월 4일 오전 태종대공원 입구 순직선원위령탑에서 '제44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매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열리는 순직선원 위령제는 선원노련과 7개 선원관련 단체(해운협회·수협중앙회·해운조합·원양산업협회·선박관리산업협회·해기사협회·선원복지고용센터)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후원한다.

위령제는 선원 유가족 및 선원 관련 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상악화로 위패봉안소에서 행사 일부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정각 부산항에 정박한 모든 선박들이 추모의 뜻으로 30초간 뱃고동 1회를 울려 시작을 알렸고, 이어 위패봉안, 묵념, 추도사 낭독, 헌화 및 분향, 위령탑 순례 및 위패봉안소 참배 순으로 진행했다.

2022년 현재 9,314위가 안치되어 있고 금년도 추가 순직선원 위패 봉안은 31위로 이곳에 모셔졌다. 한편, 1979년에 건립된 순직선원위령탑은 1876년에 부산항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해발 100m지점, 한반도 동쪽 끝자락 태평양이 시작되는 태종대에 세워졌다고 한다.

제18회 원양어업종사자 및 부산시민 축제 개최

원양어업 종사자 및 가족 놀이 한마당으로 열려





전국원양산업노조(위원장 박진동)는 10월 8일 부산해사고에서 제18회 원양축제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중단된지 2년 만으로, 원양축제는 부산 시민에게 원양산 수산물을 홍보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발상지이자 전진기지인 부산시민의 인식과 부산지역의 위상을 제고하는 원양 관련 최대 규모의 축제다.

이번 축제에는 대형 참치를 해체하는 참치 라이브쇼와 가족건강 무료검진, 캐리커쳐 그리기, 주부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또 은퇴 어선원, 수산계고교생, 원양어선원 가족 등이 참여하는 백일장·사생대회 등의 문화행사와 족구·팔씨름 등 체육행사가 펼쳐졌다. '자랑스러운 원양어업인' 시상식이 마련돼 선정된 장기근속 선원 8명은 해양수산부 장관상, 부산시장상, 부산해양경찰서장상, 한국노총위원장상 등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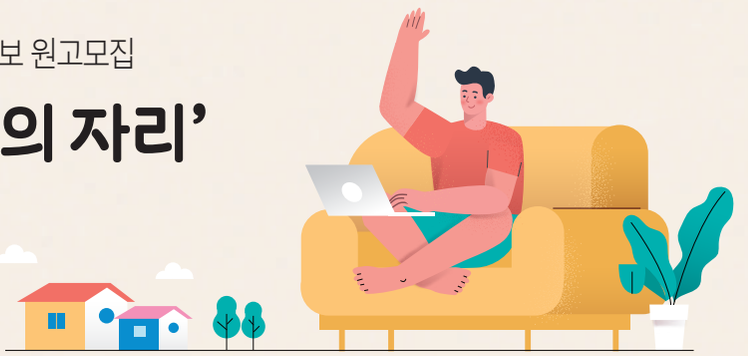
원양축제는 원양어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사간 협력 분위기를 도모하고 어선원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매년 열린다. 전국원양산업노조와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해수부·부산시·한국노총 등 노·사·정 13개 관련 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전국원양산업노조 박진동 위원장은 "원양어업 종사자와 가족,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FKTU Busan Regional Office

부산노보 원고모집

‘당신의 자리’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부산노보입니다

부산노보는 기자와 독자의 자리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행사나 취재거리, 작은 소식도 좋습니다.

조합원들의 소소한 이야기, 생각이 담긴 글 하나하나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위한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입니다.

원고모집 안내

- 원고내용 : 노동조합 행사 혹은 노보에 싣을 취재내용
  기고문, 칼럼, 수필, 사진, 노조발전을 위한 제언 등
- 문　　의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권익보호팀
  nodong@nodong21.or.kr (051-868-7605)

DRB노조 제3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DRB노조(위원장 천관욱) 제36년차 정기대의원대회가 10월 28일 Campus D 고촌홀에서 개최됐다. 지역본부 서영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회가 고무산업 부흥을 일궈내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더 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합심하여 화합적인 노사관계,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한다"는 뜻을 전했다.

부산광역시공무직노조 제61주년 기념 조합원 및 가족 체육대회



부산광역시공무직노조(위원장 손영민)는 10월 21일 일선 조합원 및 가족,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구민운동장 일대에서 노조설립 「제61주년을 기념하는 조합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노조설립 61주년을 맞이하여 노사가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의 행사를 통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2년도 제1~4차 상담역량강화 교육



지역본부가 10월 26, 27일과 11월 3, 4일 총 나흘동안 4층 중회의실에서 임직원 약 2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유닉스 노무법인 소속 이기태, 정두인, 김지웅, 김지현 노무사를 초청해 산재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심층적인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다.

꼬챙이



채규종 (322)



노동법 Q&A

Q 휴게시설 의무화 정책이 생겼던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려요.

A 22년 8월 18일 의무화가 진행되었고, 기준은 50인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 23년 8월 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4,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 확보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냉난방 설비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환기 및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 구비
- (휴게시설 관리) 관리 담당자 지정, 청결 유지, 표지판 설치 등

②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적용 예외

- (크기 및 위치 예외)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예외)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습도 예외)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 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2인 ~ 10인 기준) 적은 인원이지만 가능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환경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

Q 2023년도 최저시급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나요?

A 국선노무사 지원 대상을 월평균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해고 등이 있던 날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로는 권리구제대리인 또는 국선노무사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에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권리구제대리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근로자들은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사건 진행 안내 공문이 발생됩니다. 해당 공문에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접수한 후 2~3일 후 바로 노동위원회로 가셔서 신청을 하겠다고 서류를 달라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국선노무사제도의 한계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전문가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규정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일반 노무사들의 보수의 10%도 받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노동위원회 국선무사들의 유인동기가 낮아져 인정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이미 구제신청을 한 이후 대리인이 선임되기에,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하여 근로자측 대리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Q 급여명세서가 의무화가 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벌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금명세서 교부는 했지만 필수 기재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총액(공제 이전 임금총액 기재),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있습니다. 교부 방법으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교부가 대표적인데 최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직접 교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전자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전자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급여 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Q 시차출퇴근제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일을 일, 월, 화, 금, 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고, 2일 휴무를 수, 목으로 해도 급여는 변동이 없는 건지, 회사 내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제도를 시행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고,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A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차출퇴근제는 다른 사람과 시차를 두고, 혹은 통상 근로자의 출, 퇴근 시간과 시차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 시간이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면 10시 출근/19시 퇴근, 8시 출근/17시 퇴근 등을 시차 출퇴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채운다면 급여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연근무제란?]

•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 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 부여 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여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등 현대사회에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제도

<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운영방법 >

유형	운영 방법	적합 업무 등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양육, 장거리 출퇴근, 실무능력향상을 위해 업무 외 교육이 필요한 직장인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하는 업무에 한함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스스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등

Q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출, 퇴근 시간은 물론 식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배달앱 종사자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 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충족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77조
개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구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022년 1월부터 적용
산재보험		2021년 7월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취업규칙 등이 적용 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이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Q 최근 뉴스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A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 노동시장 종류
  - 1차 노동시장 :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 정도 종사
  - 2차 노동시장 :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 등이 있으며,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90% 정도 종사
- 근무조건 :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정도 높으며, 평균 근속연수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가 .2.3배 높아 두 시장 간의 임금 수준 및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격차가 뚜렷함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가속화 되는 상황 속에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파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 및 개선방향을 고민해나가야 할 시점에 왔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 10. 25.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결정에 대하여



이 기 태

유닉스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2022년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일시에 확대 적용의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하여 경과 규정으로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 할 수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병행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의장은 국회 내지 행정부(국무회의)에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 진술 혹은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말 그대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법률적 강제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근로기준법 4인 이하 확대적용’결정을 한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뿐 만 아니라 2008년 5월 14일에도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권고 하되, 단계적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14년이 경과한 지금 까지도 이 같은 권고 내용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결단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시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2시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속칭 빨간 날 이라 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역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법정연차휴가 제도 역시 적용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고 서면 통보의무 규정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입법이 되어 활발하게 노동현장

52시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역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법정연차휴가제도 역시 적용 되지 않는다.



해고 서면 통보의무 규정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노동자의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를 위한 신청자격 역시
상시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에 적용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노동자의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를 위한 신청자격 역시 상시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임금, 휴가, 해고, 권리구제 규정'이 모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실상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현저히 낮아(20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조직률은 0.2%에 불과) 노조를 통한 집단적 근로조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노사협의회 등 법정의무 기구 설치 역시도 의무 사항이 아니니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안정망 확보를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시급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과 같이 상시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규정이 일부만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61.5%를 차지하고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약19%(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이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상시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영세 사업주의 부담 가중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노조라는 울타리에 있는 여러분(물론 노조가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님을 잘 안다.)이 만일 현재의 직장생활에 따른 노동소득과 더불어서 사업소득 창출을 위해 창업을 꿈꾼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여러분들은 최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이에 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답이 모여 결국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변화(진보, 현상유지 또는 퇴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나는 너의 "버팀목"



허태봉

아동양육시설 동산원
사무국장

얼마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20대의 자립준비청년이 생활고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언론과 정치권에서의 목소리가 높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해마다 2500명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자립생활을 시작한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복지로)

필자는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한지 17년차 되는 사회복지사이다. 최근 요보호아동의 경우 마음에 상처를 경험하고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자립준비를 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살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고,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마음성장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요보호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자원연계를 한다. 주위의 좋은 분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여름이면 멀리 산청에 3박 4일 휴양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원외 프로그램이 힘들 경우에는 원내에서 1박 2일 캠프를 하며 "불멍"도 하고 야간에 예쁘게 설치된 조명에서 "하하", "호호" 웃기도 한다. 퇴소이후 튼튼한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8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아동들이 요보호과정에 있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거쳤음에도 퇴소이후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럴때면 나의 손길을 거쳐서 자립한 친구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혹시 언론에 나온 친구는 아닐지 하고 염려스러운 눈길로 한 번 더 보게 된다. 더 나아가 자립퇴소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은 적정한지,

아이들에게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버티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버거운 삶을 느꼈을 때, 아동을 굳건히 받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동의 정서적인 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괜찮은지, 함께 마음을 나눌수 있는 선후배들과의 네트워크는 잘 되어 있는지 등도 살펴보곤 한다.

자립퇴소하는 친구들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꾸준하게 자산적립을 하고, CDA(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하여 개인이 적립한 만큼을 국가에서 매칭하고 있다. 퇴소시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퇴소이후 5년간 매월 자립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등을 합하면 넉넉하진 않지만, 사회적응을 위한 초기 자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건전한 노동에 합류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는 친구,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친구,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여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경험하는 친구, 지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창업자금을 투자 했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친구 등 다양한 경우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아 왔다. 퇴소이후 아동들의 적응을 위해서 담당교사가 있고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연계해 줄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장학금을 연계하고 아동이 거주할 공간을 함께 찾아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아동마다의 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 담당교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처를 바꿔 버려서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아이들에게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버티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시설내 배치된 전담직원 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버거운 삶을 느꼈을 때, 아동을 굳건히 받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 구성원 한분 한분이 자립퇴소청년에게 큰 힘이 되는 “버팀목”이 되어 준다면 다시는 불행한 사건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더불어 아동복지라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나를 “버팀목”으로 여겨 줄 친구는 과연 몇 명일까를 생각해 보면 반성의 마음이 든다. 지금 생각나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 봐야 겠다.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업용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참여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해 드립니다.

01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지원 내용

유형	기본내용	참여자	참여기업
체험형	2개월 이내 **20~30일간 직무체험**	교통비 등 실비 (1일 2.2만원)	**멘토링 수당** **(1인당 10만원)**
인턴형	최대 3개월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건비 월 191만원,** **멘토링 수당(1인당 월 10만원)**

02 참여 기업 신청대상

신청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NGO, 사회적기업 등

참여제한 사유



- ☑ 소비·향락업 등(부동산, 유흥, 노래연습장, 비디오, 복권, 기타 갬블링·베팅업 등)
- ☑ 인력공급업·파견업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기업
- ☑ 임금체불·고용보험료 체납 및 중대재해발생기업
- ☑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및 중대한 사회문제 야기한 기업 등
- ☑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 이력있는 기업 (인턴형)

03 신청방법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에 문의 후 온라인 통해 신청 가능 * (2곳 중 택1)

위탁기관	(주)에듀인잡컨설팅	퍼스트인잡(주)부산사무소
연락처	051-636-8557	051-714-2480

※ 온라인신청: www.kua.go.kr 〉 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일경험〉 참여기업신청 안내〉 "참여기업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운영계획서, 사업주 확인서 (작성방법: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

참여 기업용



일경험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직장 적응능력·직무향상을 지원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04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

	체험형(직무 체험)	인턴형(직무 수행)
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대보험 가입)
지원기간(시간)	☑ 최대 30일(사업장 휴무일 제외) ☑ 1일 4시간(1주 20시간) 이내 원칙	☑ 최대 3개월 ☑ 1주 30~40시간 내 협의하되,1일 8시간
직무내용	☑ 기존 근로자 수행업무 보조 ☑ 기초적 사무 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 위험·유해한 업무는 배제	☑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직무 ☑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직무 수행 ☑ 단순·반복적인 직무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1인당 식비·교통비 등 실비 (1일 2.2 만원) ☑ 1인당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 1인 인건비 최대 월 1,914,440원 ☑ 1인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 참여자 임금은 기업에서 선지급 후 담당기관 신청
모집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전 월말기준) 수 기준 40% 이내 모집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전 월말기준) 수 기준 40% 이내 모집 가능



05 일경험 프로그램 기업 참여 과정

STEP 1
온, 오프라인으로 위탁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STEP 2
결격사유 검토 (위탁기관) 및 적정여부 검토, 승인 (고용센터)

STEP 3
신청기업에 결과통지 (위탁기관)

STEP 4
신청 결과 통지 7일 이내에 약정체결

STEP 5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금 수령

자세한 사항은 일경험 프로그램 위탁기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부산고용복지+센터

9-10월의 지역본부

- **09. 05.** 한국노총 여성담당자회의
- **09. 05.** 제95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및 제43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 **09. 06.** 2022년도 일생활균형부산지역추진단협의회 2차 회의
- **09. 16.** 전국금융산업노조 9.16 총파업
- **09. 20.** 전국택시산업노조부산지역본부 2022년 수련대회
- **09. 21.** 한국노총 회원조합, 지역본부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 **09. 21.** 2022년 제6차 부산광역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 **09. 23.** 2022년 한국노총 분쟁예방 노동법률교육
- **09. 27.** 2022년 제2차 한국노총 강사양성교육
- **09. 27.** 각 회원조합 산하 단위노조 여성간부 실태조사

- **08. 12.** TKG에코머티리얼 함께하는노조 9주년 창립기념대회 및 정기대의원대회
- **10. 04.** 제44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 **10. 07.**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부산지부 2022년도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
- **10. 08.** 제18회 원양축제
- **10. 12.** 2022년도 제4차 의장단 및 산별대표자회의
- **10. 17.** 성창보드노조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10. 18.** 제24회 산재근로자재활증진대회
- **10. 20.**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 **10. 21.** 부산광역시공무직노조 제61주년을 기념하는 조합원 및 가족체육대회
- **10. 21.** 동성케미컬노조 제3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10. 21.** 2022년 제7차 부산광역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 **10. 22.** 제18회 원양축제 시상식
- **10. 25.** 부산시청공무직노조 제3년차 창립기념대회
- **10. 25.** (사)전국해운노조협의회 추계정책토론회
- **10. 25.** 영도구협의회 10월 정기월례회 및 조직단합대회
- **10. 28.** 파크랜드노조 2022년도 제3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10. 28.** DRB노조 2022년 제3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10. 31.** 사하협의회 2022년도 노조간부교육과정



일포유 일루와 부산
부산시일자리사업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대체인력 구인 컨설팅 희망 기업·기관 모집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기업에게
우수한 인재를 알선하고 대체인력 지원금 등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컨설턴트를 파견하오니
대체인력채용 또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직원 공백이 예상되는 사업체**

지원내용

- 전문 컨설턴트 방문 상담
- 대체인력 구인 상담 및 인재알선
- 대체인력 현장직무연수 연계(40시간 연수생 지원, 강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상담

지원절차

구인신청 → 컨설턴트 방문상담 → 맞춤형 인재 추천 → 현장직무 연수연계 → 대체인력 채용성공

신청방법

가까운 **여성인력개발센터 대체인력사업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대체인력지원 사무국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Tel. 051-503-8990	www.womancenter.or.kr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Tel. 051-807-7945	www.bswoman.or.kr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Tel. 051-326-7600	www.bbwoman.or.kr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Tel. 051-464-9882	www.ewoman.or.kr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Tel. 051-201-2214	www.sahawcenter.or.kr
대체인력지원 사무국	Tel. 051-330-3421	www.bwf.re.kr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woman power 동래·부산진·사상·동구·사하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무사 자문비용,
이제는 무료로 처리하세요!

지역본부가 부산지역본부 산하 노동조합을 비롯해
소규모·영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무사 연계 무료교육 및 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각 단위노조의 노동 현안문제와 애로사항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제반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 사업장별로 노동현안, 개별적 근로관계·집단적 노동관계법, 노사쟁점, 최신판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 노무사를 매칭-연계한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연계 무료교육 및 자문서비스

신청 기간 : 2022년 11월말까지 (선착순,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 대상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산하조직 대상 (선착순 마감)

진행 과정 : 노동조합 및 개별 지원요청·신청접수 → 사업장별 방문·내방상담
→ 사건조치 → 피드백

지원 방법 : 원하는 주제와 관련, 노무사 의뢰 후 현장교육 실시

문의 | e-mail. nodong@nodong21.or.kr / t. 051-868-7605